목포시, 수산식품 산업 활성화 나섰다

실무 추진 TF팀 구성 본격 운영
내년까지 수출단지 조성 목표
경쟁력 제고 마른김거래소 조성
"성과 창출 전방위적 노력 온힘"

전라남도 목포시가 수산식품수출단지와 국제 마른김거래소의 안정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실무 추진 TF(특별작업반)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29일 목포시에 따르면 수산식품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오는 2026년까지 총 1137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4만 6612㎡ 규모의 수산식품수출단지를 조성 중이다.

이 단지는 가공·수출·연구개발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설로 지역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수출시장 확대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시는 마른김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제 수출시장으로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국제 마른김거래소도 함께 조성하고 있다.

두 사업 모두 목포시 미래 100년을 책임질 핵심 전략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따라 목포시는 최근 해양수산환경국장을 중심으로 한 9명의 실무 추진 TF를 구성하고 시청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매월 2회 정기회의를 열어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며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외부 자문단도 별도로 운영해 분기별 회의를 통해 전문성과 완성도를 높일 방침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수산식품수출단지와 국제 마른김거래소는 목포 수산식품 산업의 미래를 견인할 중대한 사업이다"며 "TF를 중심으로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목포=정기찬 기자

이충무공 탄신 제480주년 기념행사 봉행

고하도 모충각에서 200여명 참석
충무공의 업적·호국정신 되새겨

전라남도 목포시는 지난 28일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탄신 480주년을 맞아 '이충무공 탄신 제480주년 기념행사'를 고하도 모충각에서 거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목포시장 권한대행 이상진 부시장, 해군 제3함대사령관, 이충무공 목포지구기념사업회 임원, 도·시의원, 해군 및 해경 관계자, 학생 등 200여명이 참석해 충무공의 불멸의 업적을 기리고 나라사랑의 정신을 되새겼다.

탄신제에서는 충무공의 영령을 맞이하는 강신 의식과 전통 제례가 진행됐으며 목포시립합창단과 해군 제3함대 군악대의 '충무공의 노래' 합창으로 장엄한 분위기 속에서 막을 내렸다.

유달산 이순신 동상 앞에는 추모 화환이 배치돼 시민 누구나 충무공의 숭고한 호국정신을 함께 기릴 수 있도록 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명량대첩 승리 후 106일간 고하도에 머물며 병력을 재정비하고 조선 수군 재건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목포시는 매년 4월28일 고하도 모충각에서 이충무공 탄신제를 개최하며 그 뜻을 기려왔다.

목포=정기찬 기자

목포시 연안안전지킴이들이 심폐소생술 방법을 익히고 있다. 목포해경은 지난 25일 대강당에서 '연안안전지킴이 위촉식 및 직무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목포해경 제공

지난 26일 목포 평화광장 해상무대에서 해상W쇼 개막공연이 개최됐다. 목포시 제공

내달 31일 '원더랜드 목포' 예고

전라남도 목포시 평화광장 해상무대에서 지난 26일 '2025 목포해상W쇼' 개막공연이 개최됐다.

29일 목포시에 따르면 '목포 플렉스'라는 주제로 펼쳐진 이번 공연은 목포 밤바다의 낭만과 다채로운 매력을 한껏 담아냈다.

같은 시기 전라남도 전역에서 열린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과도 연계해 관광 효과를 극대화했다는 평가다.

올해 처음 도입된 해상데크 관람석 사전 예약제는 개시 2시간 만에 조기 마감될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으며 공연 당일에는 2만5000여명의 관람객이 운집해 현장의 열기를 더했다.

무대에서는 목포시립합창단의 웅장한 공연과 함께 걸그룹 '브브걸'의 역동적인 케이팝 무대, 그리고 음악에 맞춘 바다분수와 밤하늘을 수놓은 불꽃쇼가 어우러져 관람객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의 순간을 선사했다.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 구성과 생동감 넘치는 연출, 관람객의 안전과 편의를 세심하게 고려한 운영으로 공연의 완성도를 한층 끌어올렸다는 평가도 이어졌다.

한편 목포시는 다음 공연으로 오는 5월 31일 가정의 달을 기념해 가수 '싸이버거'와 함께하는 '원더랜드 목포'를 선보일 예정이다.

목포=정기찬 기자

목포해경, 연안안전지킴이 위촉·직무교육

전라남도 목포해양경찰서가 지난 25일 대강당에서 '2025년 연안안전지킴이' 위촉식 및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29일 목포해양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위촉된 연안안전지킴이는 총 10명으로, 지난 3월 모집공고를 통해 서류 및 체력·면접평가를 거쳐 연안해역의 특성을 잘 아는 지역주민들로 선발됐다.

위촉식에 이어 시행된 직무교육에서는 향후 활동에 필요한 주요 임무와 순찰구역을 비롯한 주의사항 등 이론 교육을 진행했으며 심폐소생술, 상황별 대응 방법, 인명구조장비 사용법 등을 직접 체험하는 실습 교육도 더해졌다.

이번 직무교육에는 유달유원지에서 활동 중인 목포시 안전지킴이(1명)도 함께 참여했다. 연안사고 대응 능력 향상 및 합동 순찰 등 보다 안전한 연안해역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위촉된 연안안전지킴이는 오는 5월2일부터 10월27일까지 약 6개월간 북항 소형물양장, 유달유원지 등 연안사고 위험구역 5개소에 2인 1조로 활동할 예정이다.

주요 활동으로는 △사고다발지역 순찰 △연안 및 해안가 활동객 안전계도 △사고 발견 시 초동조치 및 구조기관 전파 △안전관리 시설물 점검 등 사고 예방 업무를 수행한다.

목포=정기찬 기자

목포어울림도서관,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운영

지식정보 취약계층 어린이 대상

전라남도 목포어울림도서관이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주최한 '2025년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지역 내 지식정보 취약계층 어린이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9일 목포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도서관이 지역아동센터와 협력해 독서문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책과 친숙해지고 독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목포어울림도서관이 주관하고 옴니버스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 추진된다.

오는 8월22일까지 옴니버스 지역아동센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매주 그림책을 함께 읽고 책놀이, 역할극, 만들기 등 다양한 독후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이 책 읽기의 즐거움을 발견하고, 책과 함께 마음을 키워나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목포=정기찬 기자

오늘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 운영

전라남도 목포시가 30일까지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29일 목포시에 따르면 2024년 12월 말 결산법인은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의 경우 일반기업은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3월 법인세 신고 시 납부 기한을 연장받은 수출 중소기업 및 재난 피해 중소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이 기존 4월 말에서 7월 말로 3개월 자동 연장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시청 세정과나 위택스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할 수 있다"며 "월말에 신고 집중이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마감일 전에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인구문제 인식 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전라남도 목포시는 저출생·고령화 등 심화되는 인구문제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이기 위해 지난 25일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인구구조 변화와 인구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추진하는 프로젝트로 목포시는 정인화 광양시장의 지목을 받아 참여했다.

최근 들어 지속적인 생산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위축, 청년층 유출과 저출생으로 인한 지방소멸, 고령화 가속으로 인한 복지재정 불균형 등 인구문제가 어느 때보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목포시는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지역사회 전반에 인구문제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키고 일상 속에서 시민 모두가 인구위기 극복의 주체로 함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목포=정기찬 기자